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참 포도나무>

12/2(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15:1-8

1.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에 대해 두가지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두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지'에 대한 두가지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1.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잘라버리신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2.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겉가지들을 잘라 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치기' 라고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2.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나뭇가지' 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은 나무의 뿌리를 통해 각 가지마다 전달이 됩니다.

즉,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그 어떤 공급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2018 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또, 2019 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 소망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잘 붙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또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